

2022학년도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목 차

•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개요	5
• 통합강의 교육과정평가 결과	10
• 의학연구 교육과정평가 결과	31
• 의료면담 교육과정평가 결과	35
• 임상의학입문2(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37
•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평가 결과	40
• 문제바탕학습(PBL) 교육과정평가 결과	43
• 증례바탕학습(CBL) 교육과정평가 결과	47
• 임상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50
• [부록]	
[부록 1] 교육과정원칙 반영 정도(교수)	55
[부록 2]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학생)	56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개요

I .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목적

- 의과대학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활용한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나. 설문조사 기간

- 교수 : 2023. 1. 4.(수) ~ 2023. 1. 15.(일)
- 학생 : (의예과) 2022. 11. 14.(월)
(의학과) 2022. 11. 28.(월) ~ 2022. 12. 23.(금)

다. 조사방법

- 교수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설문조사)
- 학생 : 의예과(구글설문조사), 의학과(OASIS-의학인증)

라. 대상자별 설문조사 교육과정

- 교수 : 2022학년도 본인이 참여했던 모든 교육과정
- 학생

학년	통합강의	의학연구	의료면담	임상의학 입문 2(실습)	환자의사사회	문제바탕 학습 (PBL)	증례바탕 학습 (CBL)	임상실습
의 예 과	2	○	○					
의 학 과	1	○	○	○	○	○		
	2	○		○	○	○		
	3						○	○
	4						○	○

마. 설문응답자 현황

1) 교수

가) 교육과정별 응답 현황

① 통합강의 : 30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8	정교수	21
내과계	11	부교수	5
외과계	6	조교수	3
지원계	4	기금부교수	0
기타	1	기금조교수	1
합계	30	합계	30

② 의학연구 : 9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2	정교수	5
내과계	4	부교수	2
외과계	2	조교수	2
지원계	1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0
합계	9	합계	9

③ 의료면담 : 5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0	정교수	5
내과계	4	부교수	0
외과계	1	조교수	0
지원계	0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0
합계	5	합계	5

④ 임상의학입문 2(실습) : 8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0	정교수	4
내과계	3	부교수	2
외과계	2	조교수	2
지원계	3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0
합계	8	합계	8

⑤ 환자의사사회 : 4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1	정교수	4
내과계	2	부교수	0
외과계	1	조교수	0
지원계	0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0
합계	4	합계	4

⑥ 문제바탕학습(PBL) : 27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8	정교수	18
내과계	10	부교수	5
외과계	5	조교수	3
지원계	4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1
합계	27	합계	27

⑦ 증례바탕학습(CBL) : 10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0	정교수	10
내과계	6	부교수	0
외과계	4	조교수	0
지원계	0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0
합계	10	합계	10

⑧ 임상실습 : 21명

소속 교실	인원(명)	직책	인원(명)
기초교실	0	정교수	13
내과계	10	부교수	3
외과계	6	조교수	4
지원계	5	기금부교수	0
기타	0	기금조교수	1
합계	21	합계	21

나) 2022학년도 참여했던 모든 교육과정

교육과정	인원(명)
① 통합강의	30
② 의학연구	9
③ 의료면담	5
④ 임상의학입문 2(실습)	8
⑤ 환자의사사회	4
⑥ PBL(문제바탕학습)	27
⑦ CBL(증례바탕학습)	10
⑧ 임상실습	21

2) 학생

	의예과	의학과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참여자수 (응답수/대상수)	127/149	124/135	114/121	114/120	125/145
응답률(%)	85.2	91.8	94.2	95	86.2

통합강의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통합강의 교육내용은 기초-기초(1학년), 기초-임상·임상-임상(2학년)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15.0)	12 (60.0)	3 (15.0)	2 (10.0)	2.8
		2022	7 (23.3)	16 (53.3)	6 (20.0)	1 (3.3)	2.96
2	교수님의 강의의 앞과 뒤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1	6 (30.0)	7 (35.0)	5 (25.0)	2 (10.0)	2.85
		2022	7 (23.3)	14 (46.6)	7 (23.3)	2 (6.6)	2.86
3	각 통합강의에 배정된 총 강의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6 (30.0)	13 (65.0)	1 (5.0)	0	3.25
		2022	6 (20.0)	17 (56.6)	5 (16.6)	2 (6.6)	2.9
4	통합강의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4 (20.0)	12 (60.0)	4 (20.0)	0	3.0
		2022	6 (20.0)	15 (50.0)	7 (23.3)	2 (6.6)	2.83
5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	2021	17 (85.0)	3 (15.0)	0	0	3.85
		2022	21 (70.0)	9 (30.0)	0	0	3.7
6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	2021	13 (65.0)	6 (30.0)	0	1 (5.0)	3.55
		2022	15 (50.0)	13 (43.3)	1 (3.3)	1 (3.3)	3.4
7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2 (60.0)	6 (30.0)	2 (10.0)	0	3.5
		2022	14 (46.6)	15 (50.0)	0	1 (3.3)	3.4
8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	2021	8 (40.0)	5 (25.0)	4 (20.0)	3 (15.0)	2.9
		2022	13 (43.3)	8 (26.6)	5 (16.6)	4 (13.3)	3.0
9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까?	2021	2 (10.0)	10 (50.0)	5 (25.0)	3 (15.0)	2.55
		2022	8 (26.6)	13 (43.3)	6 (20.0)	3 (10.0)	2.86
10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	2021	2 (10.0)	12 (60.0)	4 (20.0)	2 (10.0)	2.7
		2022	6 (20.0)	15 (50.0)	4 (13.3)	5 (16.6)	2.73
11	참여교수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4 (20.0)	14 (70.0)	1 (5.0)	1 (5.0)	3.05
		2022	8 (26.6)	16 (53.3)	5 (16.6)	1 (3.3)	3.03

기타 통합강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

12

- 문항분석 관련되어 참여 교수들이 공유 필요 좋은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워크숍이 있어야 함.
- 통합강의 책임교수의 권한을 강화해서 교수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중심의 강의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교수에게 강의를 분배할 권한을 더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 방학 중 통합강의 교육을 위한 통합강의 과목별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각 통합강의과목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고 의대집행부(힘드시겠지만 한두 분이라도)도 함께 참여.

2-1. 학생 [의학과]

문항	학 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전체 통합강의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의 학 1	2021	40	32.0	77	61.6	8	6.4	0	0	3.26
		2022	36	29.0	71	57.3	10	8.1	7	5.6	3.1
	의 학 2	2021	48	38.7	66	53.2	9	7.3	1	0.8	3.3
		2022	40	35.1	71	62.3	2	1.8	1	0.9	3.32
2. 통합강의 교육내용은 기초-기초(1학년), 기초-임상(2학년),임상-임상(3,4학년)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의 학 1	2021	44	35.2	75	60.0	6	4.8	0	0	3.3
		2022	37	29.8	71	57.3	9	7.3	7	5.6	3.11
	의 학 2	2021	56	45.2	57	46.0	8	6.5	3	2.4	3.34
		2022	44	38.6	68	59.6	1	0.9	1	0.9	3.36
3. 교과목 내에서 매시간의 수업내용은 전후 수업내용과 잘 연결되었다.	의 학 1	2021	41	32.8	78	62.4	6	4.8	0	0	3.28
		2022	35	28.2	75	60.5	7	5.6	7	5.6	3.11
	의 학 2	2021	51	41.1	56	45.2	14	11.3	3	2.4	3.25
		2022	39	34.2	69	60.5	5	4.4	1	0.9	3.28
4. 학습성과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의 학 1	2021	42	33.6	77	61.6	6	4.8	0	0	3.29
		2022	33	26.6	71	57.3	12	9.7	8	6.5	3.04
	의 학 2	2021	49	39.5	65	52.4	10	8.1	0	0	3.31
		2022	35	30.7	77	67.5	1	0.9	1	0.9	3.28
5.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의 학 1	2021	23	18.4	69	55.2	26	20.8	7	5.6	2.86
		2022	29	23.4	44	35.5	34	27.4	17	13.7	2.69
	의 학 2	2021	38	30.6	63	50.8	17	13.7	6	4.8	3.07
		2022	34	29.8	61	53.5	17	14.9	2	1.8	3.11
6. 강의록은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 학 1	2021	35	28.0	81	64.8	9	7.2	0	0	3.21
		2022	36	29.0	72	58.1	8	6.5	8	6.5	3.1
	의 학 2	2021	41	33.1	72	58.1	11	8.9	0	0	3.24
		2022	37	32.5	71	62.3	5	4.4	1	0.9	3.26
7.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의 학 1	2021	42	33.6	75	60.0	8	6.4	0	0	3.27
		2022	40	32.3	70	56.5	6	4.8	8	6.5	3.15
	의 학 2	2021	44	35.5	70	56.5	9	7.3	1	0.8	3.27
		2022	37	32.5	74	64.9	2	1.8	1	0.9	3.29
8.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의 학 1	2021	30	24.0	74	59.2	19	15.2	2	1.6	3.06
		2022	34	27.4	52	41.9	25	20.2	13	10.5	2.86
	의 학 2	2021	43	34.7	51	41.1	24	19.4	6	4.8	3.06
		2022	33	28.9	56	49.1	17	14.9	8	7.0	3.0

개
선
요
구
사
항

-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면 자꾸 이거 안배웠나? 흠 어떻게 설명하지... 나중에 들으면 알거예요~를 많이 하신다.
- 매 시험마다 시험지와 답안지, 성적 등수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 매시험마다 시험점수공개 부탁드립니다.
- 시험 문제 좀 누락하지 말고 제대로 편집해서 내주세요. 안그래도시험일정 많은데 시험 범위 갑자기 조정되고 빠지고 하면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공개된 시험정답에서명백한 오류를 정답이라고 계속 주장하기보다, 명확한 근거와 함께 설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세요.
- 이번에 문제에 대한 답안 공개를 한 심장혈관학, 신장비뇨기학에정답오류문제, 시험문제 전체에 대한 문제(신장비뇨기추가시험)가 있었습니다. 답안 공개를 했던 모든 과목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간 공개를 하지 않은 과목, 시험들엔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제가 공부한 노력이 오류로 공개된 정답과 다르거나 , 시험 전체의 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버렸으니까요.
- 시험 후 점수나 정답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시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 시험 후 시험지와 답을 공개해주셔서학생들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험 종료 후 피드백 유무가 과목별로 편차가 매우 심해보입니다.
- 문제 공개, 답지 제공을 원합니다. 문제지, 답지 안주고이의제기 하라는건무슨 생각인지...
- 시험 후 시험문제에 관한 해설과 답안을 알려주시고 매 학기마다 혹은 매 시험마다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시험에서 답안지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슨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기 어렵습니다.
- 통합강의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과목별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 치의학 과정은 배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 학생 [의예과-자연과학(전공) 교육과정: 분자세포생물학, 의학유기화학, 의학과물리]

문항	학 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N	%	N	%	N	%	N	%	
1.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의 예 2	2022	31	24.2	75	58.6	21	16.4	1	0.8	3.13
2.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의 예 2	2022	28	21.7	70	54.3	28	21.7	3	2.3	2.95
3. 강의록은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 예 2	2022	24	18.6	64	49.6	35	27.1	6	4.7	2.82
4. 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의 예 2	2022	37	28.7	73	56.6	14	10.9	5	3.9	3.1
5. 시험종료 후 문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의 예 2	2022	21	16.3	44	34.1	49	38.0	15	11.6	2.55

6. 가장 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분자세포생물학]

- 시험이 없어서 부담이 없었다.
- 학생을 배려하는 커리큘럼
- 재밌는 내용이 있었다.
- 수업이 가장 알차
-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내용이라 재밌다
- 학습하기 쉬웠습니다
- 교수님이 열정적이었다
- 의학에 대한 비전과 호기심을 기를수있었다
- 문영재 교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주셨다.
- 의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 중요 내용을 기준으로 깊게 공부
- 가장 의학과 연관성이 높음
- 내용이 흥미로웠다
- 기말고사가 없어서 편했어요
- 신경 등과 관련된 내용은 타과목들에 비해 현재 배우는 해부학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지식 쌓는데 도움됨
- 참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셨다
- 상대적으로 유기화학이나 물리는 기초적인 과학적 배경을 배운다는 느낌이 강했고, 진로에 영향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분자세포생물학은 유전학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이 쓰이는구나 라고 확인하며 배울 수 있었음
- 생명과학을 전반적으로 훑는 느낌이라 좋았다.
- 세포와 세포의 작동 원리 등에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의약유기화학]

- 수업설명이 우수
- 다른과목과 연계가 잘된다
- 수업이 이해가 잘 되었고 이후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 약물 등 기초적인 부분이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유기화학과 의학과 물리 모두 무난하게 수업을 듣고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 의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수업이 체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객적으로 과목이 재밌었음
- 내용이 흥미로웠다
- 내용이 어려웠지만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다
- 의학적 지식의 폭을 넓히기에 좋은 과목이었습니다
- 그나마 배움이 있었음
- 강의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어렵지만 추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수업하셔서 이해하기 편했다.

[의학과물리]

- 이해못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심
- 레포트가 있어서 시험에 부담이 많이 없었음
- 강의록이 공부하기에 좋았다
-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의예과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내용을 배워서 좋았음
- 수업 내용이 반영되어 시험이 출제되었다
- CT 등의 영상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 의학에 필요한 기초를 배우기에 적합했다.
- 영상구조를 배우기 전 미리 mri,ct등을 접할 수 있었음.
-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교수님들이 친절하시다
- 임상 사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수업이 실용적이고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 내용이 재미있었습니다
- 수업이 깔끔하다
- 임상적으로 배울 수 있었음
- 영상의학이나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 어렵긴 했지만 알아가는게 제일 많았던 과목 같습니다.
- 전체적인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실제 의료기기의 원리에 대해 배운게 좋습니다.
-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2학기에 배우는 내용과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듣기 좋았다.
- 강의 듣기가 수월해서 공부하기에 편했습니다.
- 의학이 물리에 적용되는 사례를 컴팩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물리와 관련성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다양한 교수님들께 다양한 지식을 배웠다.
- 기초적인 내용을 빠르고 얇게 훑지만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데 효과적이고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과목이었습니다.

- 체계적으로 임상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제도 흥미로웠다. 의료인으로서 임상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다양한 주제 중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다.
- 주로 생물이나 화학 위주의 교육인 의대에서 몇 없는 물리과목이었음
-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학습가능했고 대체로 강의가 좋았다.
- 임상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흥미롭다.
- 가장 내용이 명료하고 수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셨음.
- 피피티가 가장 친절하게 제작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편했다.
- 다른 과목이 듣는데 너무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나았음
- 임상적 내용에 대해 알게나마 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알 수 있었다.
- 다양한 의료 장비나 기술들을 엿볼 수 있어 좋았었다
- 예과 2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임상적인 내용이나 해부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예 기초과학 내용을 늘리고 임상적인 내용을 축소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학에 쓰이는 물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이론은 조금 어려웠지만 의료기기의 원리와 사례가 흥미로웠다.

7.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분자세포생물학]

-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시험이 무관하게 나왔다. 수업시간에 하신 설명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 수업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 체계가 쉽사리 잡히지 않았음.
-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 어떤 기준으로 시험 성적을 주시는지 전혀 모르겠음. 기준표도 없고 주관식이라서요.
- 강의가 습득하기 어려웠다
- 수업 내용이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음. 또한 시험 채점 기준과 그 방식에 납득이 불가. 타당한 기준 없이 평가자 마음에 드는 답변이면 점수를 주는 방식이 이해 불가.
- 수업 내용만으로는 시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았다
- 과제로 책 내용 옮겨쓰기를 받았는데 학습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 수업이 뒤죽박죽이라 혼란스러웠다. 연관성을 잘 알 수 없었다.
- 해부학하고 같이하기 너무 힘듭니다..그리고 분세생1과 2가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과목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 분자세포생물학1과 2가 똑같은 느낌이다.
- 시험이 내가 공부한만큼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안들
- 남는게 없는 것 같다.
- 수업이 다소 난잡했던 것 같다
- 내용이 책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교수님이 원하는 부분만 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이 전달력이 좋지 못하십니다.
- 강의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
- 분세생 배우는 게 체감이 잘 안 됨.
- 강의 내용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주시고 수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시간에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록도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고 시험도..평가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강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말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음

- 교수님이 수업을 너무 두서없게 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심지어 시험 채점 기준도 불명확하다.
-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기초적인 부분을 생략하시는 게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 3학점짜리 강의인데 강의가 매번 1시간반만에 끝나고 수업 중에 언급되는 내용도 너무 적습니다. 그에 비해 시험에서는 수업 중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교과서 내용까지 출제되어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 공부하는게 어렵다.
- 교수님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강의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수업이 유기적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 수업 내용이 교과서나 강의록에 없는 내용을 많이 설명하셔서 이해하며 듣기 어려웠다.
- 교수님이 수업을 자세하게 해주시지 않고 시험 기준을 저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아 시험을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험 점수에 대해 억울하여 불만을 가지는 동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 강의가 비교적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내용에서 시험문제를 내셨지만 강의록에 많은 내용이 없어서 따로 공부를 해야했다.
- 해부학이랑 병행하기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 시험 문제 및 채점 기준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이 생겼음.
- 시험채점 기준이 불명확하고 제대로 공지가 되지않아, 학습방향에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 수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따라가기 어렵고, 시험에서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음.
- 내용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교수님의 강의방식이 너무 집중하기 힘들었다. 수업 중간중간 사담이 많고 같은 말 반복이 조금 심할 정도다. 게다가 피피티도 그림위주로 되어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들었어도 후에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 교수님의 강의 유형이 해당 학문의 전반적인 컨셉과 목적을 이해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간의 관계나 강조점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 이유로 시험과 수업의 유기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입장에서 평가의 항목과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수업의 리듬이 들쭉날쭉이라 혼란스러웠다.
- 교수님이 과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흐름이 없고 개념이 각각 다 분리되어서 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만 했다 다른 전공 과목과 연계되지 않는 것 같다.
- 수업교재나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 교과서를 좀더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건너뛰셨는데, 이 공백으로 인해 나중에 생화학 수업이나 생리학 수업 등 연계되는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 수업과정이 조금 중구난방한 느낌이었고, 수업과 시험이 일맥상통하지 않았다.
- 강의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약유기화학]

-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음.
- 왜 약대 교수님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다.
- 화학을 아예 몰라서 너무 어려웠다.
- 재미가 없다.
-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남. 수업에 체계가 없는 느낌.
- 의학보다 약학 중심 수업이었다.
- 후반부에 교수님이 바뀌시면서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다고 생각
- 수업이 분산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의과대학의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 위주로 학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수업이 너무 난해했다.
- 갑자기 제약관련 이야기가 나와 처음엔 흥미로웠고 수업도 좋았는데 들을수록 너무 어려워져서 멍해졌던 것 같다
-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좀더 실용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 분자세포생물학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헷갈렸고 약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인 것은 좋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의학과물리]

- 얻은게 없어서 굳이 해야하나 싶었다.
- 의예과 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이론도 임상도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생각.
- 내용이 어려운데 그에 대한 상세한 강의는 없음.
- 각 교수님 당 수업이 짧아 자세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 뭘 배우는건지 잘 모르겠다.
- 배우는 과목특성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
- 배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요성을 모르니 의지가 안생김.
-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더 긴 기간의 과정을 요함.
-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 영상에서 배울법한 내용을 굳이 물리와 엮어서 배우는게 괴리감 있었음.
- 굳이 의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전공과목인 이유를 찾지 못했고, 단순히 공식 암기에 가까운 수업 내용이었음.

- 수업내용이 분세생 학습에 별로 도움되지 않음.
- 의과대학 특성상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않도록 무작정 암기보다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심으로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 과목별로 뭘 배우는지 미리 정해서 많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 연관성을 미리 설명해주고 수업하면 좋겠다.
- 강의록 디테일
- 한 분의 교수님께서 한 과목을 한 학기 내내 전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 자연과학 교수님들과 본과 임상 교수님들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세생이나 유기화학에서 기초를 잘 다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
선
요
구
사
항**

- 일반물리학은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 분세생 차라리 아예 해부학 이후의 과정에 도움되는 직접적인 내용을 배웠으면
- 분자세포생물학 좀 더 나은 사람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 강의록에 한글도 많이 포함해 주세요
-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되, 해당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학생들이 부담은 적게 갖지만 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부학 등에 밀려 학생들이 등한시 하지 않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앞으로 있을 본과에서 배울 과목의 내용들과 의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문제로 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단순히 답안지의 양이 많다고 잘 썼다는 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유기화학을 생화학이나 생리학, 약리학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나아질 것 같다.
- 좀 더 수업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 교수님의 강의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나 이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
- 교수평가가 더 실질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강의력 개선)
- 대학 물리는 기본적으로 전자기장이나 유체역학 등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꺼있는데 그보다는 신체 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벡터나 삼투압 같은 부분을 증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2-3. 학생 [의예과-인문과학(전공) 교육과정: 기본의료면담, 의료심리학, 의학의역사, 의료인문학]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않다 (N, %)		평균
1.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의예2	2022	60	46.5	63	48.8	5	3.9	1	0.8	3.41
2.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의예2	2022	70	54.3	53	41.1	5	3.9	1	0.8	3.49
3. 강의록은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예2	2022	58	45.0	65	50.4	5	3.9	1	0.8	3.4
4. 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의예2	2022	65	50.4	60	46.5	4	3.1	0	0	3.47
5. 시험종료 후 문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의예2	2022	38	29.5	51	39.5	36	27.9	4	3.1	2.95

6. 가장 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기본의료면담]

-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써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실용적인 과목이었다고 생각한다.
- 기초적이면서도 실제 환자를 일선에서 만나는 의사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음.
- 꼭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강의록과 수업 내용이 깔끔했다.
- 가장 학습하기 편했고 무얼 학습하는 과목인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 의료면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어디서도 배우지 못할것 같은 미래에 도움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 예과 때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인 듯하다
- 온라인 강의라 편했어요.

[의료심리학]

- 교수님이 수업의 흐름을 맞춰주신다.
-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좋았다.
- 내용이 매우 흥미로움
- 제일 재밌었음
- 발달과정에 따른 심리를 배워서 좋았다.
-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서 좋았습니다.
- 정신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재밌었다.
-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 강의력이 좋으셨다.
- 흥미를 끄는 수업내용
- 정신의학에 대해 흥미가 생기고 기초적인 이해를 할수 있어서 좋았다.

- 흥미 유발을 위한 수업 구성이 많았다. 근데 프레지는 강의록 다운이 불가해서 일일이 캡처해야했다.
- 교수님이 바뀌어서 좀 아쉬웠지만 첫 수업을 포함해 중간중간 수업이 흥미로웠던 것 같다.
- 과목 자체가 우선 흥미로웠고, 강의록들도 가독성 좋게 제작되어서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 일단 강의 자체도 좋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
- 흥미를 둘 수 있는 과목을 적절한 정도의 강도를 맞춰가며 알려준 수업이었음.

[의학의역사]

-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 이때 아니면 접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인데 한번쯤 들으면 좋은 수업 같아서
- 역사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여러 인물들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 역사 발전을 보는게 재미있었음.
- 레포트 쓰면서 공부 잘 되고 강의록 좋아요.
- 강의록과 강의 연계도가 컸다.
- 의학 역사를 한번 죽 훑는 느낌이라 좋았다.

[의료인문학]

- 교수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았다.
- 부담이 없었다.
-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학술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평소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인문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 힐링과목 그자체였습니다. 재미있었어요.
- 인생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 다양한 교양을 쌓는 수업이었다.
-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었다.
- 뭔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수업이어서 좋았습니다.
- 인문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정말 인문학을 배우는 것 같았다.
- 깊이 있는 내용을 배움
- 인문학답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음.
- 수업을 잘 가르치신다.
- 과학에만 치우친 의학에서 벗어나 넓은 가치관을 얻을 수 있었다.
- 교수님이 평소에 하신 생각들을 강의 형식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적절한 평가와 수업 난이도
- 다른 강의들과 배우는 내용이 완전 달라 흥미로웠다.
- 새로운 수업방식, 평가방식이라 인상깊었습니다.
- 강의가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인문학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 인문학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많았다.
- 단순한 공부라 아니라, 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대학생활에서 좋은 시간이었다.
-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과목이고, 수업량에 대한 부담도 적었다.
- 의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인문학적인 교육에 집중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할 수 있었음.
-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이론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수업 개설의 목적과 실제 수업이 일치하여 학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다.

-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문제들을 던져주셔서 좋았다.
- 예1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전공 수업이 많아진 환경에서, 책을 읽으면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에 사회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일단 부담이 덜한데다 내용이 제일 흥미로웠고 수업 진행도 좋아서 부담없이 재밌게 들을 수 있던 수업이었다.
- 수업 내용이 정말 의미있었으나, 강의록이 없고 시험을 보지 않아 남은 내용이 별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강의록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주시면 수업 듣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 한 학기동안 독서를 할 수 있는 수업이었고 내용과 관련해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주었다.
-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나의 눈높이를 높여준,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인문학 수업을 듣는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고 흥미로웠다.

7.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기본의료면담]

-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느낌
- 수업은 좋았지만 비대면이어서 아쉬웠다.
- 수업은 쉽게 해주시나 시험이 너무 어렵다
- 시험에 내용이 잘 반영되는지 알기 어려움
-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
- 과목의 학습목표에 크게 공감할 수 없었다.
-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음
- 과목의 특성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서 인 것 같습니다.
- 비대면 수업이어서도 그랬겠지만 이론 강의만 듣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심리학]

- 이해가 어려웠다.
- 양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 수업이 너무 일방향이적이다.
- 심리를 수업듣는다는게 공감이 안됐어요.
- 강의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심리학을 의료와 연관지어 배웠는데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다.
-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업의 핵심적인 방향성이 다소 약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한다.
- 심리 관련 병변에 대해 수업하고 시험만 본 것이라 인문 수업이라 생각되지는 않았다.
- 교수님이 계속 바뀌었는데 흥미롭고 유용해보이는 수업도 있었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에다 이게 과연 의학과 관련 있는 심리학인가하는 수업도 있어 좀 힘들었다.

[의학의역사]

- 경중이 없다
- 외워야하는 내용이 살짝 지엽적이었다.
- 수업이 어려웠다.
- 도움이 될만한 과목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 과목은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
- 역사적 발전과정, 또는 기여한 바가 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서술보다는 병렬적이고 통시적인 내용이 많아 유의미한지는 모르겠다.

- 굳이 따지자면 피피티가 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나열식이라서.
- 언젠간 한번쯤 배워야한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 흥미가 없었음.
- 이때 해부 총론을 배웠으면...
- 시험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이 많이 나왔다.
- 연도와 인물들을 외워야 하는 게 어려웠다.
- 너무 생암기였고 이렇게까지 달달 외워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긴했다.
- 진짜 일종의 정보 전달의 수업이어서.
- 재밌고 유익하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선정하였습니다.
- 레포트가 너무 많다.
- 단순히 과거 역사를 암기할 뿐인 내용이었는데 특정 시대에서의 의학의 변화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매칭시킨다면 더 좋아질 것 같았음.
- 잘 기억나지도 않고 단순 암기의 수업이었다.

[의료인문학]

- 교수님은 너무 좋으시나 개인적으로 인문학이 재미가 없다
- 수업의 목적성을 잘 모르겠다.
- 평가방식 때문인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낮다. 소규모 그룹활동으로 진행하는것도 괜찮아보인다.
- 책읽고 소통하는건 좋은데 내용이 어렵고 읽어가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 책이 너무 어려웠다.
-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강의의 의도와 달리 참여도가 애매한 것이 아쉬웠다
- 교육과정 자체의 설득력이 없다. 의료와 인문학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 책 한권에 대해 한학기 내내 토론하는게 아쉬웠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

**개
선
요
구
사
항**

-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인문학소양 이었으면
-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사 생활에 있어서...)
- 인문학과 같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수업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
- 기본의료면담 시험문제가 쉬워지면 나아질 것 같다.

2-4. 학생 [의예과-연구역량(전공) 교육과정: 의학통계학, 의료정보학]

문항	학 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연구역량 교육과정의 편성과 진행 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의 예 2	2022	39	30.2	73	56.6	13	10.1	4	3.1	3.14
2. 연구역량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연구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 예 2	2022	46	35.7	61	47.3	18	14.0	4	3.1	3.16
3. '의학연구 1,2' 연구 주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다.	의 예 2	2022	37	28.9	66	51.6	19	14.8	6	4.7	3.05
4. '의학연구 1,2' 평가방식은 적절하다.(Pass/Fail)	의 예 2	2022	87	67.4	38	29.5	1	0.8	3	2.3	3.62

5. 가장 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의학통계학]

- 양도 많고 시험도 어려웠지만 많은 것을 배운 과목이었습니다.
- 통계학 논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 추후 배우는 과목들에 유용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음
- 통계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
-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실습을 통해 직접 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앞으로 의학 논문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한번쯤은 알아둬야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 수업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통계의 의학적 활용을 이해할 수 있었음
- 소화해내기 버겁긴 했지만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주심
- 성취감도 있고 재미있었다.
- 논문 읽을 때 도움됨
- 포스터 만들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관련 통계가 단순한게 아나라는 걸 느껴서
-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는 실습과정이 재미있었다
-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며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 흥미로운 강의내용이었고 연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상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 통계라는 학문에 대해 직접 배우고 적용도 해보며 효율적으로 배운 것 같다.
- 조별로 연구하는 게 유익했습니다.
- 의학통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 어렵긴 했지만 중간 이후 한 실습이 큰 영향을 미치고 체화됨
- 포스터를 만드는 경험이 특별했다
- 조별활동을 통해 실제 통계분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에 따라 도와주시는 정도가 달랐는데, 이 점이 불합리한 것 같았다.
- 내용은 많이 어려웠지만 예과때만 배울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포스터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허둥대기도 했지만 학기 마지막에 지난 학기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조별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많이 배웠다.
- 학생들에게 의학적 논문을 읽을 수 있게끔하는 최소한의 지식의 전달과, 통계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의료논문에서 통계자료를 읽는 방법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 연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인데 프로그램 돌리는 법을 익혔기에 먼훗날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가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음.
- 제대로 내가 이걸 했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준 유일한 과목이다. 내용은 많이 어려웠지만 배운내용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은 재밌었다.
-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이 과목을 배우기 전과 후 논문을 읽을 때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 과목 덕분에 기본적인 통계학적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조별활동이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구조였다

[의료정보학]

- 앞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움
- 기술을 배우는게 재미있었다.
- 새로운 걸 배우가는 게 신기했다

6.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의학통계학]

- 충분한 이론 학습을 한 후에 조별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다
- 내용이 어려워서 솔직히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 이해도 안되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 시험과 실습이 모두 너무 부담
- Rex가 어렵다.
- 교수님들이 막 수업하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됨
-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어려웠습니다. 이 중에서 억지로 뽑아 불만족이라고 한겁니다 사실 나름 괜찮은 과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별 과제하는건 괜찮은데 발표 당일날 임의로 발표자 정해지는게 부담스러웠어요
- 실습하는 조의 인원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다
- 조별과제 너무 어렵습니다
-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 좀더 쉽게풀어서 가르쳐주셨으면 좋았을것같다.

[의료정보학]

- 이해하기 어렵고 비대면 수업이어서 힘들었다
- 코로나 시절 강의 재탕
- 공대과목 느낌이었고 뭘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남
-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 공대 교수님들께서 수업하신 부분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가장 남는게 없었던 과목이다.
- 솔직히 뭘 배우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다

- 초반에 타과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는데, 후에 의학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내용과 연계가 안 된다
-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시려하니 너무 알아듣기 힘들었음. 1학년때 관련 수학을 배워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듯
- 내용은 어려운데 반해 쉽게 설명해주시지 못한것같다
- 내용이 쉽지 않았다
- 뭘배웠는지 기억이 안나요.
- 정보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에는 효율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 주제가 분산되어있어 차라리 파이썬을 가르치는게 나을 것 같다.
- 의학과는 상관없이 컴퓨터공학과와 전공을 배우는데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배워야 해서 학습이 어려웠다.
-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거 같지는 않았다.
- 통계학과 겹치는 내용이 많다
- 아직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코딩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겠음
- 공대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것이 미래의 연구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 공대 교수님들이 진행하신 수업의 경우 공대에서 몇 학기에 걸쳐 배울 내용을 한 학기 수업 한 개로 배우려다 보니 내용에 깊이가 없고,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의대 교수님이 현재 의학에서 정보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신 부분은 좋았습니다.
- 아직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코딩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겠음

개 선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학 조별과제의... 의미... ○ 좀 더 체계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수업을 세세히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 의료정보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안배우고 대신 기말고사 파트를 더 많이 배우면 좋겠다
----------------------------	--

2-5. 학생 [의예과-기초의학(전공) 교육과정: 인체기능입문, 인체육안구조, 인체육안구조실습, 인체영상구조, 의학유전학]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의예2	2022	26	20.2	73	56.6	24	18.6	6	4.7	2.93
2.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의예2	2022	16	12.4	31	24.0	60	46.5	22	17.1	2.32
3. 강의록은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예2	2022	37	28.7	64	49.6	25	19.4	3	2.3	3.25
4. 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의예2	2022	50	38.8	63	48.8	15	11.6	1	0.8	3.33
5. 시험종료 후 문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의예2	2022	34	26.4	62	48.1	26	20.2	7	5.4	2.96

6. 가장 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인체기능입문]

- 수업을 상세히 해주셨음
- 가장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 분량이 적당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 학생들의 이해상태를 고려해서 수업해주셨습니다.
-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 수업내용과 시험문항이 적절했다.

[인체육안구조]

- 내용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인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 힘든만큼 교수님들께 배울게 많았음
- 드디어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 같아 흥미로움
- 확실히 정형화되어있는 느낌이라 편했다
- 가장 힘들지만 그만큼 많은 애정을 쏟은 과목입니다.
- 아직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배운 내용을 임상적으로 적용해보는 수업이라 의미있었다.
- 수업이 힘들고 양도 너무 많고 시험도 자주 있어서 힘들었지만 유익했습니다
- 배운 내용을 실제로 보니 이해가 잘 됐다
- 최윤호 교수님 강의록과 강의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가 잘 되며 시험 피드백이 잘 이루어졌다
-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배운내용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 교수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심
- 해부학을 배우니 의과대학에 다니는 느낌이 났다
- 진짜 의학을 배우는 거 같아서 느낌이 새로웠다
- 전반적으로 인체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 최윤호 교수님. 학생 친화적이었고,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하였다.
- 내용도 많고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꼭 배워야 할 내용이며 교수님들께서도 강의록을 자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학습하기에 수월했습니다.
- 최윤호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해주셨다
- 내용은 많고 시험은 어렵지만 학생들이 의학도로서 가져야 할 지식을 주는 과목임
- 양이 방대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고 의학의 기초를 쌓아올릴 수 있는 과목이었다. 힘든만큼 많이 배웠다.
- 교수님께서 수업과 강의록에 신경쓰신다는 점이 느껴짐.
- 의대 입학하고 나서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준 과목이다. 공부 양은 많지만 뿌듯하다.
- 교수님마다 다양한 교수법으로 가르쳐주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습과 잘 연계되어 좋았다
- 배울때 힘든거야 당연한거지만 드디어 의학도로 한 걸음을 내딛은 것 같은 과목이라 배우고 나서 돌아보면 만족스럽다.
- 상대적으로 성적 부담이 큰 본과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을 배우면서 의대 공부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은 매우 많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 해부학중 thorax,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공부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인체육안구조실습]

- 실습이라는 의미가 컸다
-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처음으로 카데바실습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일주일에 2번 5시간씩은 조금 다른 과목과 병행하기에 벅찼다
- 실제 인체를 해부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실제로 보고 체험하니 느껴지는게 많았다.
- 육안구조때 배운 내용을 카데바를 통해 볼 수 있어 좋았다
- 실습 가이드라인이 없어 아쉽지만 과목 자체가 주는 경험
- 교수님들 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교수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 카데바를 직접 만져본다는 경험은 쉽게 체험할 수 있는게 아니다
-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 복습하니 내용이 정리가 잘 된다.

[인체영상구조]

- 해부학을 배우고 수업을 들으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 입상적으로 배울 수 있음
- 이해하기 직관적이고 쉬워서 좋았다.
-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과목이라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과목이어서 배우는 데 재미있었다
- 인체육안구조 수업 동안 배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의학유전학]

- 기초와 임상 모두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수업자체도 재밌었고 시험도 알려주신거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셨다
- 의료발전을 위한 필수 과목인 것 같다.
- 강의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 학습량과 난이도가 가장 적절하다.

7.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인체기능입문]

-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생리학)
- 내용은 적합했으나 수업이 듣기에 힘들었다.
- 생각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생리학에 대해 공부하니 너무 힘든점이 있었습니다
- 수업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다른 과목들은 육안구조 수업 때 배운 것을 실습 때 확인하고, 영상구조 수업 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좀 더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벅차다.
- 임상교수님들이 본과와 진도를 헛갈리셔서 가끔 조직학이나 발생학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하시는게 힘든 부분
- 강의록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했다. 조금 압축해주시면 좋을것같다.

[인체육안구조]

- 시험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컸다.
- 이해하기가 쉽지않음. 강의록, 시험이 불친절함
- 할게 너무 많음 실습이랑 같이하니깐 넘 힘들
- 해부학 수업이 전체적으로 별로였다
- 너무 양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요.
- 내용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들었다.
-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어쩔수 없지만 양이 많다.
- 교수님들마다 진행하라는 파트가 달라서 힘들었다
- 강의록에 안나온거 시험에 내신다. 한학기에 갑자기 배우기에는 양이너무많다. 의학용어과목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 특정 시험부터(abdomen) 시험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 배우는 것도 많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다.
- 교수님들마다 강의해주시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공부하기 힘들었다.
-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를 속도는 빠르는데 강의록에는 그림 밖에 없어서 내용을 받아적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 공부는 공부대로 할게 많은데 일주일에 실습이 2번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험도 너무 잦고 정말 실습 부담이 너무 큼니다. 실습 보고서에 쏟아지는 강의록들을 보고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번만 실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둘 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 예2때 한번에 학습하기에는 너무 많은 약이었고 벅찼다.
- 교수님이 시간에 쫓겨 수업 못하고 강의록만 제공하는 정도의 양이라는게 말이 안됨.
- 전체적으로 흐름이 빠르고 내용이 너무 많아 시험에 나올것 같은 부분만 공부하게 된다.
- 시험을 보고 나와도 문제의 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도 시험 이후에 정답을 공개하는 교수님이 한분 빼고 없었고 해부학교실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다.
- 학습량이 너무 많다.
-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양을 배우려니 시험 후 머리에 남는 게 없다.
- 1학기때부터 배웠으면 양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학기에 모든 각론과 신해를 하려고 하니 촉박한 것 같습니다.
- 강의록이 불친절하며 수업의 구성이 빈약하다. 수업에 보다 분명한 흐름과 눈에 띄는 강약조절이 필요하다.
- 젊은 교수님은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적절한 시각자료와 함께 임상적 자료도 제공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으나, 몇몇 교수님의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강의록과, 떨어지는 강의 전달력 등으로 인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주2회에 달하는 인체육안구조실습 때문에 공부 시간이 줄어 힘들었다.

-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해할 시간은 없고 단순히 암기만 해서 시험이 끝나면 남은 지식이 없다
양을 나눠서 1학기에 조금이라도 먼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습도 일주일에 10시간씩 진행하고
시험도 매주 여러개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 여유가 없었다고 느껴졌다.

[인체육안구조실습]

- 일주일 두 번은 너무 많고 이론과 실습이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 너무 벅차다.
-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너무 막막했다.
- 실습을 어떻게 진행할 지가 모호해서 힘들다
- 아직 자리잡지 못한 느낌이다. 학생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 너무 백지상태에서 하는 기분이라 어려워요
- 과도한 실습시간
- 보고서가 교수님마다 다 달라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
- 실습 횟수가 일주일에 2번이라 너무 힘들다.
- 학생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느낌이 컸다.
- 조별로 다르게 진행하다보니 땡시 범위에 해당하는 부위를 한 번만 보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 일주일에 9시간은 너무 힘들고 계획이 불분명해요
- 육안구조와 동시에 이루어져 진도가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계획표를 저희 스스로 짜는 것이 힘들었고, 카데바 땡시 등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 계획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쓰였고 조마다 해놓은게 달라서 땡시 공부하기에 불편했어요
- 학점에 비해 실제 실습 기간이 너무 길며, 잦은 시험과 겹쳐 학생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주 원인임
- 실습시간 중 질문이 있어도 교수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을 몰라 질문이 바로 해소되지 않아 아쉬웠다.
-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힘든 거 같습니다. 실습횟수와 보고서..
- 실습시간 자체는 어쩔수없이 힘든시간이지만 계획서 등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운영과정이 있었다
- 초반의 골학 실습시간이 불필요하게 길고,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실습진행에 방해가 됨.
- 과목 자체가 불만족스럽진 않았으나 보고서로 평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과도한 실습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다. 실습을 하는 날이면 사실 피곤해서 다른 공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때 시험공부에 집중해야하는 커리큘럼 특성에 맞지 않은 것 같다.
- 개인적으로 실습 일정이 좀 힘든것 같다. 실습하면 지쳐서 그 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거기에 시험이
일주일에 2개씩 몰아치니 실습만 없었으면이란 생각이 자주 들긴 한다.
- 실습이 일주일에 두 번이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땡시를 통해 까먹은 이론 수업 내용을 복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올해에는 저번과는 달라진 점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 약 2달 만에 너무 많은 양을 끝내려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로했다.
- 실습시간이 과하게 많으며 도구와 자리가 부족하다.

[의학유전학]

-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다.

개 선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들끼리 협동했으면 좋겠다. ○ 수업커리큘럼이 매우 부담스러움 ○ 3개월에 인체육안구조를 끝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적응하고나서는 할만해져서 3개월 투자의 가 치가 있다. ○ 때론 자율적으로 헤쳐나가기보단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강의록에 설명을 친절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인체육안구조 내용이 너무 많은데 2학기에 다 하려니 버거운느낌이 있었습니다.
- 자신의 공부를 하고 그 실력을 평가받는 과목이고 현 의예과 2학년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인 해부학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적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의합니다.
-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이해를 강조하시면서 정작 시험은 지엽적인 것만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발 강의록만 읽고 수업했다고 안했으면 좋겠다.
- 최윤희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강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화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 예과 2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해부학을 배우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 지치고, 실습 때문에 지칩니다.
- 수업시간상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지만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는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이해하고 공부하기에는 시험일정이 많이 빠듯해서요!
- 땡시 공부가 해부학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땡시 문제수를 늘리거나 비중을 크게했으면 좋겠어요
- 해부학 수업이 일부는 예2 1학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 1학기에서 2학기로 오면서 갑자기 학습량이 많아져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예2 1학기에서 2학기를 위한 준비단계의 과목을 배우던지, 학습량을 분산하던지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 인체육안구조의 경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주시고, 그림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같은 경우는 줄글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부학을 예1때부터 예2 1학기때까지 3학기동안 하면 해부학을 자세하게 학습할수 있을것 같다.
- 인체기능입문은 사실 왜 듣는 지 모르겠다.
- 육안구조의 유급 커트라인을 맞추기 위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요구함.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니 학생들은 막상 실습에 들어가서는 시험을 본 내용을 자주 까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차라리 유급의 변별력을 실습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초지엽적 암기력을 요구하기보단 인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게 나을 것 같음
- 해부학을 한학기에 몰아서 하니 힘들어서, 가능하다면 예과때 조금씩 쪼개서 배워도 좋을 것같다.
-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참 좋은 동기부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성적을 알게 되면서 현재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제겐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시험 점수가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감을 잡을 수 없어 유급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의학연구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의학연구 교육과정(의학연구1,2,3)은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결과를 이해하며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21	3 (33.3)	4 (44.4)	0	2 (22.2)	2.89
		2022	3 (33.3)	3 (33.3)	3 (33.3)	0	3.0
2	의학연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 운영하였다.	2021	4 (44.4)	3 (33.3)	1 (11.1)	1 (11.1)	3.11
		2022	4 (44.4)	2 (22.2)	3 (33.3)	0	3.11
3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또는 연구주제는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다.	2021	4 (44.4)	3 (33.3)	1 (11.1)	1 (11.1)	3.11
		2022	4 (44.4)	2 (22.2)	2 (22.2)	1 (11.1)	3.0
4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을 학습하기에 적절하였다.	2021	1 (11.1)	6 (66.7)	1 (11.1)	1 (11.1)	2.78
		2022	1 (11.1)	3 (33.3)	4 (44.4)	1 (11.1)	2.44
5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조별 학생 수는 적절하였다.	2021	4 (44.4)	3 (33.3)	1 (11.1)	1 (11.1)	3.11
		2022	4 (44.4)	4 (44.4)	0	1 (11.1)	3.22
6	학생들은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21	5 (55.6)	2 (22.2)	0	2 (22.2)	3.11
		2022	4 (44.4)	3 (33.3)	1 (11.1)	1 (11.1)	3.11
7	지도학생들과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 방법을 통해 분석 및 비판적 사고, 상호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021	4 (44.4)	3 (33.3)	1 (11.1)	1 (11.1)	3.11
		2022	3 (33.3)	4 (44.4)	2 (22.2)	0	3.11
8	의학연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도를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2021	3 (33.3)	4 (44.4)	1 (11.1)	1 (11.1)	3.0
		2022	4 (44.4)	3 (33.3)	2 (22.2)	0	3.22
9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평가방식(pass/fail)은 적절하였다.	2021	4 (44.4)	3 (33.3)	1 (11.1)	1 (11.1)	3.11
		2022	4 (44.4)	4 (44.4)	1 (11.1)	0	3.33
10	의학연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 및 과학적 방법을 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2021	3 (33.3)	4 (44.4)	1 (11.1)	1 (11.1)	3.0
		2022	4 (44.4)	3 (33.3)	1 (11.1)	1 (11.1)	3.11

11 의학연구 교육과정의 과목운영 또는 수업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 하세요.

- PBL처럼 의대내 모든 교수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교실별로 참여교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또한 교수가 연구주제를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너무 어려운 주제가 많아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됨. 예과 학생 수준에 맞는 아주 기본적인 연구주제를 PBL처럼 운영하는게 좋겠음.
- 학생 수준에 맞는, 기초 실험을 배우고 직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예과 2학년 - 본과 1학년 1학기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예과 1학년 2학기에 시작하여 예과 2학년 2학기 종료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2. 학생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연구역량 교육과정의 편성과 진행 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의 예 2	2022	39	30.2	73	56.6	13	10.1	4	3.1	3.14
2. 연구역량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연구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의 예 2	2022	46	35.7	61	47.3	18	14.0	4	3.1	3.16
3. '의학연구 1,2' 연구 주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다.	의 예 2	2022	37	28.9	66	51.6	19	14.8	6	4.7	3.05
4. '의학연구 1,2' 평가방식은 적절하다.(Pass/Fail)	의 예 2	2022	87	67.4	38	29.5	1	0.8	3	2.3	3.62

개 선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하는지 모르겠고 교수님께서도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교수님별로 하는 활동량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담당 교수님에 따라 편차가 큰 것 같음. ○ 연구 수업의 틀을 크게 잡아주세요 교수님별 편차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힘든 수업으로 느껴졌다. ○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 아닌거같다. 조별로, 지도교수님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 학생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연구에 참여해야 함. 효율도 떨어지고 얻는것도 없고 시간만 쏟고. ○ 담당교수님별로 진행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연구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주시면 좋겠다. ○ 학생들이 하기에는 주제도 어렵고 하는 일이 많다. ○ 배정받는 교수님들마다 해당 과목을 진행하는 난이도 등 투자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께 저희가 어느정도의 의학지식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시설이나 학생들 수준으로 보아 의학연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 pass/fail 방식인데 조별 무게감이 너무 다름. 차라리 다같이 가볍게 가던지, 몇몇 시간 엄청 들이는 조는 억울함 부담스러움 ○ 학생수준보다 다소 어려운 듯했다. ○ 굳이 의학연구 2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학기를 계획만 세운 조도 있는데 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도 있다고 생각되어 3번이 아닌 2번에 걸쳐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조마다 연구에 참여하는 빈도수나 연구의 어려움의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함. 특정 조에서는 쉽게 학기를 진행하고, 특정 조는 너무 어렵게 진행한다는 문제가 있음 ○ 예과라 아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 수업이 체계적이지 못해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에게 매우 부담이 컸다. ○ 실상은 교수님 짐으로밖에 안 느껴짐. 연구도 교수님께 얹혀가는 경우가 많음. ○ 수업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실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실험하는 연구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 어떤 조에 속하느냐(어떤 교수님) 에 따라 연구의 난도 차이가 심한 것 같다. 참여한 활동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다.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 교수님별로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어느정도의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면 합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교수님별 편차가 컸으며 과목의 진행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다.○ 의학연구를 1학기씩 당겨서 예과 2학년 2학기 때 의학연구 3까지 끝내거나 의학연구 2까지로 편성하여 예과 2학년에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
|--|

의료면담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의료면담이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인지 아십니까?	2021	-	-	-	-	-
		2022	2 (40.0)	3 (60.0)	0	0	3.4
2	의료면담 1, 2, 3 과목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	-	-	-	-
		2022	1 (20.0)	3 (60.0)	1 (20.0)	0	3.0
3	각 의료면담(1,2,3 각각) 과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	-	-	-	-
		2022	1 (20.0)	3 (60.0)	1 (20.0)	0	3.0
4	의료면담 과목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	-	-	-	-
		2022	1 (20.0)	3 (60.0)	1 (20.0)	0	3.0
5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셨습니다 가?	2021	-	-	-	-	-
		2022	1 (20.0)	4 (80.0)	0	0	3.2
6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 하셨습니다가?	2021	-	-	-	-	-
		2022	1 (20.0)	4 (80.0)	0	0	3.2
7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2021	-	-	-	-	-
		2022	1 (20.0)	4 (80.0)	0	0	3.2
8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 가?	2021	-	-	-	-	-
		2022	2 (40.0)	3 (60.0)	0	0	3.4
9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 였습니까?	2021	-	-	-	-	-
		2022	3 (60.0)	2 (40.0)	0	0	3.6
10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 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	2021	-	-	-	-	-
		2022	3 (60.0)	2 (40.0)	0	0	3.6
11	기타 의료면담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참여교수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						

2. 학생

문항	학 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전체 의료면담 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 다.	1	2021	45	36	78	62.4	2	1.6	0	0	3.34
		2022	-	-	-	-	-	-	-	-	-
2. 의료면담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021	47	37.6	74	59.2	4	3.2	0	0	3.34
		2022	-	-	-	-	-	-	-	-	-
3. 학습성과와 수업내용은 학습하 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	2021	50	40	75	60	0	0	0	0	3.4
		2022	-	-	-	-	-	-	-	-	-
4.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1	2021	50	40	72	57.6	3	2.4	0	0	3.38
		2022	-	-	-	-	-	-	-	-	-
5.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1	2021	44	35.2	81	64.8	0	0	0	0	3.35
		2022	-	-	-	-	-	-	-	-	-
6.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하였다.	1	2021	38	30.4	82	65.6	5	4	0	0	3.26
		2022	-	-	-	-	-	-	-	-	-

개 선 요 구 사 항	-
----------------------------	---

임상의학입문 2(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임상수기 습득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	-	-	-	-	-
		2022	2 (25.0)	5 (62.5)	0	1 (12.5)	3.0
2	기본임상술기지침서에 따라 지도하고 계십니까?	2021	-	-	-	-	-
		2022	2 (25.0)	6 (75.0)	0	0	3.25
3	임상술기센터는 임상수기 교육 환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	-	-	-	-
		2022	0	4 (50.0)	4 (50.0)	0	2.5
4	학생들은 임상수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021	-	-	-	-	-
		2022	0	7 (87.5)	0	1 (12.5)	2.75
5	기타 임상의학입문2(실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오. <input type="checkbox"/>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필요함.						

2. 학생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않다 (N, %)		평균
			N	%	N	%	N	%	N	%	
1. 전체 임상의학입문 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2	2021	46	37.1	58	46.8	17	13.7	3	2.4	3.19
		2022	36	31.5	72	63.1	5	4.3	1	0.8	3.25
2. 임상의학입문 교육이 실제 임상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	2	2021	49	39.5	52	41.9	20	16.1	3	2.4	3.19
		2022	40	35.0	71	62.2	2	1.7	1	0.8	3.31
3. 학습성과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2	2021	54	43.5	57	46	11	8.9	2	1.6	3.31
		2022	41	35.9	70	61.4	2	1.7	1	0.8	3.32
4.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2	2021	54	43.5	56	45.2	9	7.3	5	4	3.28
		2022	38	33.3	70	61.4	5	4.3	1	0.8	3.27
5.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2	2022	58	46.8	58	46.8	5	4	3	2.4	3.38
		2022	38	33.3	74	64.9	1	0.8	1	0.8	3.3
6.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2	2021	47	37.9	56	45.2	17	13.7	4	3.2	3.18
		2022	34	29.8	65	57.0	9	7.8	6	5.2	3.11

개 선 요 구 사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수조절을 유기적으로 해서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지 않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임의입이론이 계속 일주일마다 조금씩 조금씩나가서 계속 흐름이 끊기고 임의입과 손상과 주술기학과목을 임상수기 실습 전에 한번에 몰아서 수업하는 것이 연속성과 기억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본1, 본2 교육과정에서 이미 중대한 질병들을 다 배운 후에, 임상의학입문1이라는 술기를 다루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진찰하는 방법이나 기초적인 술기들은 각 통합과목 이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오히려 간단한 술기를, 물론 중요하지만, 하다보니 뭔가 이상할 때가 자주 있었다. ○ 저는 전북대 의학대학 커리큘럼이 너무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물론 학업면에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동기들이랑 같이 지내며 어디가서 다시 못 배울 여러 과들에 대해 배우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 모든 시험에서 답안지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슨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기 어렵습니다. ○ 이미 후배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손상 주술기응급 등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듯하여 좋습니다. ○ 새로 생긴 cpx과목은 아직 너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모형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수기 전에 임의입과 손상과 주술기학과목을 한번에 꼭 몰아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험 관련 정보가 너무 없어 학생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수업 전부터 시험 관련 정보를 확실하게 하고 블록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오래되어 너털너털하거나 부품이 망가진 술기 모형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모형들을 제외하면 연습에 사용할 모형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불편했습니다. 어떤 술기들에서는 모형의 개수가 학생 수의 절반보다 적었던 적도 있었는데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CPX 시험의 경우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무슨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시 실기는 패스 논패스고, 저는 올패스인데 cpx시험 점수는 항상 하위권입니다.
- CPX/OSCE 실기 모의평가가 본과 2학년에서 본과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중에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본과 4학년의 경우 2월, 7월, 9~10월에 거쳐서 CPX/OSCE 실기 모의평가가 3차례 있었습니다. 본과 3학년 분과별 실습 중에도 CPX가 다뤄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본 외우기에 그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CPX/OSCE (국시 실기)의 개념 및 출기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CPX/OSCE 실기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과 2학년에서 본과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중에 국가고시 실기 모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과 3학년 실습 중에 진행되는 CPX 시간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제 지인의 경우에도 본과 2학년 마칠 무렵에 첫 실기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아직 임상실습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CPX 퍼포먼스가 전북의대 3~4학년 학생보다 월등했습니다.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환자의사사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인지 아십니까?	2021	2 (66.7)	1 (33.3)	0	0	3.7
		2022	1 (25.0)	3 (75.0)	0	0	3.25
2	환자의사사회 1,2,3,4 과목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 (33.3)	2 (66.7)	0	0	3.3
		2022	1 (25.0)	2 (50.0)	1 (25.0)	0	3.0
3	각 환자의사사회(1,2,3,4 각각) 과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 (33.3)	2 (66.7)	0	0	3.3
		2022	1 (25.0)	2 (50.0)	1 (25.0)	0	3.0
4	환자의사사회 과목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 (33.3)	2 (66.7)	0	0	3.3
		2022	1 (25.0)	2 (50.0)	1 (25.0)	0	3.0
5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	2021	2 (66.7)	1 (33.3)	0	0	3.7
		2022	1 (25.0)	3 (75.0)	0	0	3.25
6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	2021	2 (66.7)	1 (33.3)	0	0	3.7
		2022	0	4 (100)	0	0	3.0
7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2 (66.7)	1 (33.3)	0	0	3.7
		2022	1 (25.0)	3 (75.0)	0	0	3.25
8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	2021	0	3 (100)	0	0	3.0
		2022	1 (25.0)	2 (50.0)	1 (25.0)	0	3.0
9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습니까?	2021	1 (33.3)	1 (33.3)	1 (33.3)	0	3.0
		2022	1 (25.0)	3 (75.0)	0	0	3.25
10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	2021	1 (33.3)	1 (33.3)	1 (33.3)	0	3.0
		2022	1 (25.0)	2 (50.0)	1 (25.0)	0	3.0
11	기타 환자의사사회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응답 없음						

2. 학생

문항	학년	학 년 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전체 환자의사사회 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1	2021	43	34.4	80	64	2	1.6	0	0	3.33
		2022	32	25.8	74	59.6	7	5.6	11	8.8	3.02
	2	2021	62	50	58	46.8	4	3.2	0	0	3.47
		2022	36	31.5	75	65.7	2	1.7	1	0.8	3.27
2.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021	40	32.8	82	65.6	3	2.4	0	0	3.3
		2022	32	25.8	74	59.6	6	4.8	12	9.6	3.01
	2	2021	67	54	54	43.5	3	2.4	0	0	3.52
		2022	37	32.4	75	65.7	1	0.8	1	0.8	3.29
3. 학습성과와 수업내용은 학습 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	2021	40	32	79	63.2	6	4.8	0	0	3.27
		2022	34	27.4	67	54.0	14	11.2	9	7.2	3.01
	2	2021	67	54	53	42.7	4	3.2	0	0	3.51
		2022	38	33.3	73	64.0	2	1.7	1	0.8	3.29
4.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	1	2021	38	30.4	79	63.2	6	4.8	2	1.6	3.22
		2022	38	30.6	60	48.3	17	13.7	9	7.2	3.02
	2	2021	63	50.8	56	45.2	5	4	0	0	3.47
		2022	37	32.4	72	63.1	3	2.6	2	1.7	3.26
5.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1	2021	45	36	76	60.8	3	2.4	1	0.8	3.32
		2022	39	31.4	71	57.2	5	4.0	9	7.2	3.31
	2	2021	64	51.6	55	44.4	5	4	0	0	3.48
		2022	38	33.3	75	65.7	0	0	1	0.8	3.31
6.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	2021	37	29.6	80	64	8	6.4	0	0	3.23
		2022	36	29.0	69	55.6	9	7.2	10	8.0	3.05
	2	2021	47	37.9	52	41.9	21	16.9	4	3.2	3.15
		2022	34	29.8	65	57.0	10	8.7	5	4.3	3.12

개 선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들이 시간을 넘어서 강의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 하루의 수업량도 많고, 시험 준비기간도 너무 짧아서 시험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밤을 세고, 시험 후 바로 수업을 들으니 학생들이 졸면서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는 등 악순환이 느껴졌습니다. ○ 시험을 세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험 범위 자체는 적절하게 분배된 것 같습니다만, 시험의 간격이 타과목에 비해 매우 짧아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험을 여러번 봐야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번에 보면 공부도 유기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끊어서 보니 공부의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	--

문제바탕학습(PBL)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정보습득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2 (10.5)	10 (52.6)	8 (36.8)	0	2.7
		2022	2 (7.4)	13 (48.1)	10 (37.0)	2 (7.4)	2.55
2	모듈개발을 원하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모듈주제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5 (26.3)	11 (57.9)	3 (15.8)	0	3.1
		2022	6 (22.2)	12 (44.4)	8 (29.6)	1 (3.7)	2.85
3	PBL 수업시간은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2 (10.5)	12 (63.2)	5 (26.3)	0	2.8
		2022	4 (14.8)	12 (63.2)	7 (25.9)	4 (14.8)	2.59
4	PBL 모듈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15.8)	8 (36.8)	8 (36.8)	0	2.7
		2022	3 (11.1)	12 (63.2)	9 (33.3)	3 (11.1)	2.55
5	조별 학생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15.8)	12 (63.2)	4 (21.1)	0	2.9
		2022	6 (22.2)	11 (40.7)	5 (18.5)	5 (18.5)	2.66
6	조별 구성원 간 혹은 해당 튜터와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PBL 전용 홈페이지를 잘 사용하십니까?	2021	1 (5.3)	11 (57.9)	6 (31.6)	1 (5.3)	2.6
		2022	4 (14.8)	10 (37.0)	8 (29.6)	5 (18.5)	2.48
7	PBL 평가방식은 적절하다고(PASS/FAIL) 생각하십니까?	2021	7 (36.8)	8 (36.8)	2 (10.5)	2 (10.5)	3.1
		2022	10 (37.0)	9 (33.3)	6 (22.2)	2 (7.4)	3.0
8	학생들은 P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021	2 (10.5)	8 (36.8)	8 (36.8)	1 (5.3)	2.6
		2022	2 (7.4)	14 (51.8)	8 (29.6)	3 (11.1)	2.55
9	새로운 모듈이 시작될 때 실시하는 모듈 설명회가 PBL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2 (63.2)	6 (31.6)	1 (5.3)	0	3.6
		2022	14 (51.8)	11 (40.7)	1 (3.7)	1 (3.7)	3.4
10	PBL 수업시간 2시간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신 시간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 (평균 45.9 분)						
11	<p>기타 PBL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모듈의 개발과 함께 튜터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함. 튜터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 학생들에 대한 PBL orientation 이 부족함을 느낀다. ○ 학생 수를 줄이고 PBL 문항 개발을 교수 1인당 1년에 1개씩 의무적으로 개발하게 하며 업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드립니다. 						

- 학생들이 시간만 때우고 갑니다. fact와 problem의 구별을 못하거나, 가설을 중심으로 하는 토의가 거의 없이 fact의 나열만 하는 등 기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모듈 개발이 필요함. Pass/Fail이 아닌 일반적인 평가로 변경.
- 학생참여 독려 권유

2. 학생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PBL은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정보습득이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1	2021	33	26.4	85	68	6	4.8	1	0.8	3.2
		2022	33	26.6	70	56.4	12	9.6	9	7.2	3.02
	2	2021	45	36.3	63	50.8	15	12.1	1	0.8	3.23
		2022	33	28.9	71	62.2	8	7.0	2	1.7	3.18
2. PBL 모듈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다.	1	2021	34	27.2	83	66.4	8	6.4	0	0	3.21
		2022	30	24.1	57	45.9	22	17.7	15	12.0	2.82
	2	2021	44	35.5	63	50.8	16	12.9	1	0.8	3.21
		2022	34	29.8	68	59.6	11	9.6	1	0.8	3.18
3. PBL 모듈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었다.	1	2021	43	34.4	79	63.2	3	2.4	0	0	3.32
		2022	40	32.2	72	58.0	4	3.2	8	6.4	3.16
	2	2021	52	41.9	65	52.4	6	4.8	1	0.8	3.35
		2022	35	30.7	74	64.9	3	2.6	2	1.7	3.24
4. PBL 수업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였다. (현재 2시간 배정)	1	2021	39	31.2	80	64	5	4	1	0.8	3.26
		2022	35	28.2	70	56.4	10	8.0	9	7.2	3.05
	2	2021	50	40.3	56	45.2	17	13.7	1	0.8	3.25
		2022	38	33.3	72	63.1	3	2.6	1	0.8	3.29
5. 조별 학생 수는 적절하였다.	1	2021	39	31.2	83	66.4	2	1.6	1	0.8	3.28
		2022	39	31.4	72	58.0	6	4.8	7	5.6	3.15
	2	2021	50	40.3	66	53.2	6	4.8	2	1.6	3.32
		2022	35	30.7	75	65.7	3	2.6	1	0.8	3.26
6. 조별 구성원간 혹은 해당 튜터와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PBL 전용 홈페이지를 잘 사용하였다.	1	2021	35	28	75	60	13	10.4	2	1.6	3.14
		2022	38	30.6	69	55.6	7	5.6	10	8.0	3.08
	2	2021	41	33.1	55	44.4	21	16.9	7	5.6	3.05
		2022	36	31.5	67	58.7	9	7.8	2	1.7	3.19
7. PBL 평가방식은 적절하다. (PASS/FAIL)	1	2021	70	56	54	43.2	1	3.2	0	0	3.31
		2022	64	51.6	51	41.1	2	1.6	7	5.6	3.39
	2	2021	79	63.7	42	33.9	3	2.4	0	0	3.61
		2022	55	48.2	57	50.0	1	0.8	1	0.8	3.45

8. 학생들은 P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	2021	43	34.4	78	62.4	4	3.2	0	0	3.31
		2022	39	31.4	67	54.0	9	7.2	9	7.2	3.09
	2	2021	49	39.5	59	47.6	14	11.3	2	1.6	3.25
		2022	35	30.7	70	61.4	6	5.2	3	2.6	3.2
9. 튜터는 PBL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1	2021	46	36.8	76	60.8	3	2.4	0	0	3.34
		2022	39	31.4	68	54.8	9	7.2	8	6.4	3.11
	2	2021	54	43.5	59	47.6	10	8.1	1	0.8	3.34
		2022	37	32.4	68	59.6	7	6.1	2	1.7	3.22

개 선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1보다는 본 2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면담 시간이랑 문제바탕학습 시간이 붕 뜨는 것이 아쉽습니다. 더욱 피곤한 상태에서 토의에 참여하게 되어 힘든 적이 많아요. ○ 시험 날이면 시간 붙여주세요 공강 6시간 애매합니다. ○ 교수님별로 PBL 수업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전부 다르십니다. ○ 수업시간이 의료면담하고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의료면담하고 붙여 놓고 미리 PBL실로 이동하여 조별로 지난주 내용 토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PBL 수업은 우리가 배운 것을 종합하여 진단하거나 추가적인 검사, 결과들을 예측하며, 모르는 것을 제대로 조사하여 익히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PBL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통합과목과 같이 하다 보니, 각 과목의 시험기간이나 학사일정에 따라 과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BL의 경우, 본과 1-2 학생들에게 1시간 정도만 되도 충분한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교수님 별로 해당 모듈의 접근 방향성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튜터 교수님에 따른 편차가 적도록, 관련 기준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용 홈페이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 조원 간의 자료 공유와 상의는 편리하게 카톡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pbl수업 시간은 30분 가량이었는데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PBL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게 의학과 1학년 때는 배운게 없는데 1, 2학년까지 배워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모듈로 나와서 어려웠던 것들이 많습니다. 의학과3, 4학년 CBL처럼 의학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실습을 통해서 많이 알고 난 다음에 하거나 CBL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증례바탕학습(CBL)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CBL 수업 주제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증상을 통해 질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37.5)	5 (62.5)	0	0	3.4
		2022	4 (40.0)	5 (50.0)	1 (10.0)	0	3.3
2	CBL 수업 내용이 임상증상중심 학습목표달성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37.5)	5 (62.5)	0	0	3.4
		2022	4 (40.0)	5 (50.0)	1 (10.0)	0	3.3
3	증례 선정이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1 (12.5)	7 (87.5)	0	0	3.1
		2022	3 (30.0)	6 (60.0)	1 (10.0)	0	3.2
4	학생들은 C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021	0	3 (37.5)	5 (62.5)	0	2.4
		2022	2 (20.0)	3 (30.0)	4 (40.0)	1 (10.0)	2.6
5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	2021	4 (50.0)	4 (50.0)	0	0	3.5
		2022	6 (60.0)	4 (40.0)	0	0	3.6
6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	2021	5 (62.5)	3 (37.5)	0	0	3.6
		2022	6 (60.0)	3 (30.0)	0	1 (10.0)	3.4
7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3 (37.5)	5 (62.5)	0	0	3.4
		2022	4 (40.0)	5 (50.0)	0	1 (10.0)	3.2
8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	2021	2 (25.0)	1 (12.5)	4 (50.0)	1 (12.5)	2.5
		2022	1 (10.0)	5 (50.0)	2 (20.0)	2 (20.0)	2.5
9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습니까?	2021	0	2 (25.0)	5 (62.5)	1 (12.5)	2.1
		2022	0	3 (30.0)	3 (30.0)	4 (40.0)	1.9
10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	2021	2 (25.0)	2 (25.0)	3 (37.5)	1 (12.5)	2.6
		2022	0	3 (30.0)	3 (30.0)	4 (40.0)	1.9
11	CBL 수업시간 2시간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신 시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평균 76 분)						

기타 증례바탕학습(CBL)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2

-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새로운 교수진의 참여
- 주제와 교수진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매해 부분적으로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학생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CBL 오리엔테이션은 CBL수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2021	64	43.8	79	54.1	2	1.4	1	0.7	3.41
		2022	43	37.7	62	54.3	6	5.2	3	2.6	3.27
	4	2021	23	16.2	112	78.9	7	4.9	0	0	3.11
		2022	53	42.4	59	47.2	4	3.2	9	7.2	3.25
2. CBL 수업 주제들은 다양한 증상을 통해 질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2021	65	44.5	79	52.1	4	2.7	1	0.7	3.4
		2022	40	35.0	63	55.2	7	6.1	4	3.5	3.21
	4	2021	38	26.8	88	62	14	9.9	2	1.4	3.14
		2022	53	42.4	58	46.4	5	4.0	9	7.2	3.24
3. CBL 수업 내용이 임상증상중심 학습목표달성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다.	3	2021	63	43.2	76	52.1	6	4.1	1	0.7	3.38
		2022	43	37.7	62	54.3	6	5.2	3	2.6	3.27
	4	2021	37	26.1	86	60.6	17	12	2	1.4	3.11
		2022	53	42.4	58	46.4	5	4.0	9	7.2	3.24
4. CBL 수업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였다. (현재 2시간 배정)	3	2021	62	42.5	74	50.7	9	6.2	1	0.7	3.35
		2022	39	34.2	63	55.2	8	7.0	4	3.5	3.2
	4	2021	38	26.8	86	60.6	15	10.6	3	2.1	3.12
		2022	54	43.2	56	44.8	6	5.6	9	7.2	3.26
5.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	3	2021	65	44.5	77	52.7	4	2.7	0	0	3.42
		2022	46	40.3	58	50.8	6	5.2	4	3.5	3.28
	4	2021	33	23.2	87	61.3	22	15.5	0	0	3.08
		2022	48	38.4	63	50.4	5	4.0	9	7.2	3.2

개 선 요 구 사 항	○ 학생 발표와 교수님의 피드백과 강의까지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

임상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1. 교수

번호	문항	학년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1	임상실습 지침서에 따라 임상실습을 운영하였습니까?	2021	5 (31.3)	10 (62.5)	1 (6.3)	0	3.3
		2022	8 (38.0)	10 (47.6)	3 (14.2)	0	3.2
2	임상실습지침서는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5 (31.3)	9 (56.3)	2 (12.5)	0	3.2
		2022	6 (28.5)	13 (61.9)	2 (9.5)	0	3.1
3	임상실습의 필수적 학습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실습 계획을 세웠습니까?	2021	6 (37.5)	7 (43.8)	3 (18.8)	0	3.2
		2022	7 (33.3)	12 (57.1)	2 (9.5)	0	3.2
4	임상실습이 일차 진료의로서의 지식과 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까?	2021	6 (37.5)	8 (50.0)	1 (6.3)	1 (6.3)	3.2
		2022	7 (33.3)	12 (57.1)	2 (9.5)	0	3.2
5	임상실습은 실제 계획된 스케줄대로 진행하였습니까?	2021	5 (31.3)	10 (62.5)	0	1 (6.3)	3.2
		2022	10 (47.6)	8 (38.0)	3 (14.2)	0	3.3
6	각 과(분과)에 배정된 임상술기 항목(osce, cpx) 교육은 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2021	6 (37.5)	8 (50.0)	1 (6.3)	1 (6.3)	3.2
		2022	7 (33.3)	10 (47.6)	4 (19.0)	0	3.1
7	외래 환자에게 직접 병력청취 및 신체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2021	3 (18.8)	5 (31.3)	6 (37.5)	2 (12.5)	2.6
		2022	3 (14.2)	6 (28.5)	5 (23.8)	7 (33.3)	2.2
8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습이 진행되었습니까?	2021	5 (31.3)	9 (56.3)	2 (12.5)	0	3.2
		2022	4 (19.0)	14 (66.6)	3 (14.2)	0	3.0
9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평가방법은 사전에 공지하였습니까?	2021	8 (50.0)	7 (43.8)	1 (6.3)	0	3.4
		2022	8 (38.0)	11 (52.3)	1 (4.7)	1 (4.7)	3.2
10	학생들의 임상실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해주셨습니까?	2021	6 (37.5)	7 (43.8)	2 (12.5)	1 (6.3)	3.1
		2022	3 (14.2)	12 (57.1)	5 (23.8)	1 (4.7)	2.8
11	각 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였습니까?	2021	3 (18.8)	9 (56.3)	3 (18.8)	1 (6.3)	2.9
		2022	3 (14.2)	12 (57.1)	5 (23.8)	1 (4.7)	2.8

기타 임상실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2

- 실습 도구를 가능한 한 업데이트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학생들 사이에 cpx실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이 필요함.
- 일차 진료의, 임상술기 항목(OCSE, CPX)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 전 시험과 일차의 목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당 과만의 교육의 중요성도 미리 공지되었으면 합니다.
- 환자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객관적인 지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 임상실습계획서의 개선과 계획서에 따른 실습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함.

2. 학생

문항	학년	학년도	매우그렇다 (N, %)		그렇다 (N, %)		그렇지않다 (N, %)		매우그렇지 않다 (N, %)		평균
1. 임상실습 지침서에 따라 임상실습이 이루어졌다.	3	2021	55	37.7	80	54.8	9	6.2	2	1.4	3.29
		2022	43	37.7	63	55.2	3	2.6	5	4.3	3.26
	4	2021	29	20.4	89	62.7	23	16.2	1	0.7	3.03
		2022	53	42.4	60	48.0	6	4.8	6	4.8	3.28
2.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2021	57	39	78	53.4	9	6.2	2	1.4	3.3
		2022	43	37.7	61	53.5	5	4.3	5	4.3	3.24
	4	2021	31	21.8	67	47.2	39	27.5	5	3.5	2.87
		2022	51	40.8	61	48.8	6	4.8	7	5.6	3.25
3. 각 과(분과)에서 배정된 임상술기항목(osce,cpx) 교육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3	2021	51	34.9	72	49.3	21	14.4	2	1.4	3.18
		2022	41	35.9	58	50.8	11	9.6	4	3.5	3.19
	4	2021	42	29.6	74	52.1	24	16.9	2	1.4	3.1
		2022	50	40.0	57	45.6	12	9.6	6	4.8	3.21
4. 학습을 위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3	2021	86	58.9	58	39.7	2	1.4	0	0	3.58
		2022	60	52.6	49	42.9	2	1.7	3	2.6	3.45
	4	2021	70	49.3	63	44.4	7	4.9	2	1.4	3.42
		2022	59	47.2	57	45.6	12	9.6	6	4.8	3.5
5.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습이 진행되었다.	3	2021	68	46.6	75	51.4	3	2.1	0	0	3.45
		2022	49	42.9	60	52.6	2	1.7	3	2.6	3.35
	4	2021	42	29.6	92	64.8	7	4.9	1	0.7	3.23
		2022	58	46.4	56	44.8	5	4.0	6	4.8	3.33
6. 임상실습 평가방법은 사전에 공지되었다.	3	2021	61	41.8	74	50.7	7	4.8	4	2.7	3.32
		2022	44	38.5	59	51.7	8	7.0	3	2.6	3.26
	4	2021	31	21.8	78	54.9	27	19	6	4.2	2.94
		2022	52	41.6	62	49.6	4	3.2	7	5.6	3.27
7. 학생들의 임상실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3	2021	54	37.0	73	50.0	15	10.3	4	2.7	3.21
		2022	43	37.7	48	42.1	14	12.2	9	7.8	3.09
	4	2021	28	19.7	79	55.6	30	21.1	5	3.5	2.92
		2022	56	44.8	56	44.8	6	4.8	7	5.6	3.29
8. 각 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3	2021	56	38.4	72	49.3	14	9.6	4	2.7	3.23
		2022	44	38.5	59	51.7	8	7.0	3	2.6	3.26
	4	2021	31	21.8	85	59.9	23	16.2	3	2.1	3.01
		2022	52	41.6	62	49.6	4	3.2	7	5.6	3.27

9. 임상실습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분과)를 2개 쓰시오.

감염내과	1	안과	9
내과	3	영상의학과	4
내분비내과	12	외과(상부위장관)	6
마취통증의학과	5	유방갑상선외과	3
방사선종양학과	1	응급의학과	3
비뇨기과	3	이비인후과	20
산부인과	5	정신건강의학과	4
성형외과	8	정형외과	6
소아과	1	진단검사의학과	3
소화기내과	16	피부과	5
신경과	8	핵의학과	3
신장내과	7	혈액종양내과	3
심장내과	4	호흡기내과	2

10. 기타 임상실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학생 발표에서 틀린 점이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렸다고 지적을 받지만 지적으로 끝나고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정답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높이려면 실습이 끝난 뒤 보는 시험 성적보다 임상 실습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환자 분들 예진해봤던 경험이 많을 수록 국가고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습 둘 때 cpx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그냥 대본 만들어서 무작정 외워서 하는 식으로 발표하고 넘어갔던 것 같다.
- 포트폴리오와 같은 제출서류를 종이로 프린트 하는 건 시간낭비, 종이낭비입니다. pdf파일로 LMS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 더 많은 수술 참관을 원합니다.
- 일차병원 파견 프로그램을 더 다양한 분과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의료인을 양성하는데 더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모든 인원이 모든 수술을 참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이 대답을 못했을 때 혼내기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편이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의가 된 후 로컬 병원에서 많이 일하게 되는 과의 경우에는 외부 로컬 병원에 파견되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ex. 현재 이비인후과에서 시행 중인 파견 실습)
- 실습 끝나고 바로 다음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다 보니까 마지막 주는 실습 준비에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 정형외과 왕성일 교수님이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환자들도 좋겠지만 참관하는 학생들도 배울 점이 많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과는 외래나 수술할 때 앉아서 볼 수 있어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실습을 수행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무적으로 하는 제출서류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와 경과일지 작성과 같은 경우 별로 도움은 안되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듯 합니다.

부 록

[부록 1] 교 수 : 교육과정원칙 반영 정도

[부록 2] 학 생 :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

[부록 1] 교육과정원칙 반영 정도(교수)

번호	교육과정원칙	학년도	매우 반영됨	반영	반영되지 않음	매우 반영되지 않음	평균
1	성과비탕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21	1 (7.7)	9 (69.2)	3 (23.1)	0	2.85
		2022	8 (24.2)	21 (63.6)	3 (9.0)	1 (3.0)	3.09
2	기본진료의사 양성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2021	3 (23.1)	10 (76.9)	0	0	3.23
		2022	12 (36.3)	19 (57.5)	2 (6.0)	0	3.3
3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평-수직통합이 되도록 구성한다.	2021	1 (7.7)	11 (84.6)	1 (7.7)	0	3.0
		2022	6 (18.1)	21 (63.6)	5 (15.1)	1 (3.0)	2.96
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21	0	11 (84.6)	2 (15.4)	0	2.85
		2022	4 (12.1)	18 (54.5)	9 (27.2)	2 (6.0)	2.72
5	지역사회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021	0	11 (84.6)	1 (7.7)	1 (7.7)	2.77
		2022	6 (18.1)	18 (54.5)	7 (21.2)	2 (6.0)	2.84
6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2021	2 (15.4)	9 (69.2)	1 (7.7)	1 (7.7)	2.92
		2022	15 (45.4)	9 (27.2)	8 (24.2)	1 (3.0)	3.15
7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2021	3 (23.1)	9 (69.2)	1 (7.7)	0	3.15
		2022	8 (24.2)	21 (63.6)	4 (12.1)	0	3.12
8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2021	0	9 (69.2)	3 (23.1)	1 (7.7)	2.62
		2022	7 (21.2)	13 (39.3)	12 (36.3)	1 (3.0)	2.78
9	의학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2021	0	11 (84.6)	2 (15.4)	0	2.85
		2022	6 (18.1)	16 (48.4)	8 (24.2)	3 (9.0)	2.75

[부록 2]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학생)

구분	학년	학년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합강의 교육과정	1	2021	40	32.0	77	61.6	8	6.4	0	0	3.3
		2022	35	28.2	74	59.6	7	5.6	8	6.4	3.0
	2	2021	52	41.9	61	49.2	11	8.9	0	0	3.3
		2022	37	32.4	74	64.9	1	0.8	2	1.7	3.2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	2	2021	53	42.7	53	42.7	12	9.7	6	4.8	3.2
		2022	36	31.5	66	57.8	9	7.8	3	2.6	3.1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	1	2021	35	28.0	81	64.8	8	6.4	1	0.8	3.2
		2022	29	23.3	66	53.2	18	14.5	11	8.8	2.9
	2	2021	56	45.2	59	47.6	9	7.3	0	0	3.4
		2022	34	29.8	74	64.9	4	3.5	2	1.7	3.2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	1	2021	29	23.2	82	65.6	10	8.0	4	3.2	3.1
		2022	26	20.9	61	49.1	22	17.7	15	12.0	2.7
	2	2021	42	33.9	55	44.4	23	18.5	4	3.2	3.1
		2022	30	26.3	69	60.5	13	11.4	2	1.7	3.1
증례바탕학습 교육과정	3	2021	43	29.5	90	61.6	11	7.5	2	1.4	3.2
		2022	34	29.8	62	54.3	12	10.5	6	5.2	3.0
	4	2021	16	11.3	111	78.2	13	9.2	2	1.4	3.0
		2022	44	35.2	62	49.6	12	9.6	7	5.6	3.1
임상실습 교육과정	3	2021	50	34.2	80	54.8	15	10.3	1	0.7	3.2
		2022	35	30.7	68	59.6	9	7.8	2	1.7	3.1
	4	2021	18	12.7	101	71.1	21	14.8	2	1.4	3.0
		2022	53	42.4	60	48.0	6	4.8	6	4.8	3.2

2022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인쇄일 2023년 2월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평가인증관리센터

발행인 의과대학장 임석태, 교육부학장 강경표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화 (063) 270-3055
